

# 비대칭전 주요사례 연구

김성우\*

## 요 약

비대칭전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성격 및 기능을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작전이며 '이질성'과 '우월성'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이질성'이라 함은 적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취약분야를 공격하거나 적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월성'은 적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압도하는 능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비대칭 전략의 유형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대칭 전략의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대칭전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이해가 요구된다.

비대칭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전투에서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방법과 전략·전술로 적을 격멸한 사례들은 비대칭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투에서 승리한 핵심요인에는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의 차별적 우월성이 반드시 존재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한 때 창출된 비대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편이 모방적으로 적응하여 비대칭이 소멸된다. 현대전에서 전략적·전술적 비대칭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새로운 비대칭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에 대응하는 방책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 Study on the Case of the Asymmetric War

Kim, Sung Woo\*

### ABSTRACT

We can not respond asymmetric warfare effectively. The asymmetric operation is performed in asymmetric methods and mean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to their enemy. And the character of the asymmetric operation have 'heterogeneity' and 'superiority' in principle. The type of asymmetric strategy is complex and diverse. Since we can classify the type of the asymmetric strategy in many different way and we must study in many ways and aspects.

When we study asymmetric war previous cases from modern to ancient era, we can find that the key factors of the victory have superiority of the asymmetric strategy and discriminatory measures. The asymmetry is created when one party has to adapt to the strategic environment. If we want to secure a strategic advantage, we must take a number of case studies and countermeasures for asymmetric warfare.

**Key words : asymmetric warfare, asymmetric methods, discriminatory measures, strategic environment, development of new asymmetric strategy**

## 1. 서 론

캐나다의 해군 전문가인 폴 프라이스는 미국 ‘국제 해양안보센터(CIMSEC)’ 기고문에서 북한 해군이 동·서안으로 양분된 지리적 제약과 기술적 우위인 한미 양국의 해상전력 대응책으로 위협적인 비대칭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북한 해군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맞서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 잠수정, 기뢰 부설 능력 등 상당한 비대칭전력을 갖춰 큰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sup>1)</sup>

1950년 6월 25일 남침 이후 한반도를 92% 장악한 8월 이후부터 북한군은 부산교두보를 돌파하기 위해 공격한지 약 한달 반만에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황은 반전되었고 유엔군의 추격을 받아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12월 6일 평양을 탈환하고 재차 남하 중이던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안북도 별오리에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3차 전원회의인 대규모 남침작전 평가회의가 김일성이 주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회의 자료는 김일성이 북한군의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및 차후 대책에 관해 언급한 흔하지 않은 자료 중에 한가지로 평가된다. 이 자료를 보면 다섯 번째 결함사항은 “우수한 공군력과 포화들을 소유한 적들과 싸우는 특수한 조건에서 전투를 진행할 줄 몰랐다. 기계적으로 전투규정을 습득하여 각종 부동한 조건하에서와 전술로써 싸움하는데 부족하였다. 특히 적들의 공습이 심한 산지전과 야간전투에 능숙하지 못하였다”<sup>2)</sup>라고 진술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잠수함이나 핵개발 등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 전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 -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며, 최근 시험 개발 중인 300mm 방사포는 최대사거리 고려 시 중부권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 선 지역에 122mm 견인방사포 등 포병전력을 증강하고 유탄호를 구축하여 생존성을 높여 선제기습을 위한 준

비를 마쳤다.<sup>3)</sup>

북한의 이러한 부대배치와 전략 및 전술은 그들이 비대칭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위협, 비대칭 전력, 비대칭 전략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비대칭전 개념

### 2.1. 비대칭 전쟁 · 전략의 개념과 발전

‘비대칭전’이란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대칭이 아닌 상태, 즉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며 군사적 용어로는 위협이외에도 비대칭 작전, 비대칭 수단, 비대칭 전략, 비대칭 전력, 비대칭 전쟁 등이 사용되고 있다. 비대칭전의 개념은 전략적 사고차원과 군사적 적용차원에서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비대칭 안보위협은 ‘국가나 국가이외의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대방에 비해 우위를 누리기 위해 가상의 적대국가나 세력에게 예외적인 특별한 어떤 것이나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것’이라 함은 불공정한 전투, 취약점 공격하기, 정보 혹은 사이버전, 선전전, 테러리즘, 그리고 핵·화생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기술될 수 있다.<sup>4)</sup>

한국 합참의 “연합·합동 군사용어사전”을 보면 “비대칭전이란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전쟁 양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육군 교범 지상군작전”에 의하면, “비대칭전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성격 및 기능을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작전이며 ‘이질성’과 ‘우월성’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이질성’이라 함은 적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취약분야를 공격하거나 적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월성’은 적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압도하는 능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sup>5)</sup>

예로부터 국가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비록 표현이나 형태 그리고 수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비대칭적 수단과 방법

을 유용한 전략적 방책으로 고려해왔다. 손자병법 시계(始計)편에서 “전쟁이란 적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듯이 보이고,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가까우면서도 먼 것처럼 보이고, 멀면서도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sup>6)</sup>라고 한 것을 보면 손자(孫子)는 전쟁에서 용병은 적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여 심리적·정보전의 차이에 비대칭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원전 약420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Pericles)는 적국인 스파르타의 지상 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육지에서 결전을 회피한 채 철저히 해양전략으로 일관하는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였다. 13세기 징키스칸 과 그 후손들은 적보다 뛰어난 기동력, 작전템포, 정보, 훈련, 사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격전을 수행하여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비대칭 전략이라 볼 수 있다.<sup>7)</sup>

## 2.2. 비대칭 전략의 유형

비대칭 전략의 형태나 수행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비대칭 전략의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2.2.1 수준에 의한 구분

정치적 수준의 비대칭 전략, 군사전략적 비대칭 전략, 기술적 비대칭 전략을 들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수준의 비대칭 전략은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의 호치민(胡志明)의 경우처럼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약한 국가는 적을 침략자로, 스스로를 일방적 희생자로 포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사적 수준의 비대칭 전략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군사적 수준과 방법에 주안을 둔 비대칭 전략으로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격전, 대량보복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작전적 수준의 비대칭 전략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의 잠수함전, 시가지작전, 전후방에서의 게릴라작전, 그리고 미사일 및 기로, 테러 등을 이용한 거부작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8)</sup>

### 2.2.2. 차원에 의한 구분

현재의 미국은 군사적으로 질적·양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상대국가보다 아주 큰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그러나 약소국가들이 강대국과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이용하는 소극적 비대칭 전략이 효과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의 대응책이 나오기까지 약 1-2년간 독일의 전격전의 경우처럼, 상대가 모방하고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계적 비대칭 전략이 있었다. 냉전종식 이후 오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 헤게모니 장악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많은 중·소국가들로 하여금 정치적, 군사적 비대칭 전략과 장기적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게 만들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리적 비대칭전략과 몽골, 아시리아, 아즈텍, 줄루족 등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적에게 무자비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오래 지속되는 더 큰 효과를 노리는 심리적 비대칭전략 등을 들 수 있다.<sup>9)</sup> 차원에 의한 비대칭 전략은 전술한 것 이외에도 저위험 비대칭과 고위험 비대칭, 개별적 비대칭과 통합적 비대칭, 의도적 비대칭과 우연적 비대칭, 질적 비대칭과 양적 비대칭, 그리고 조직의 비대칭성과 기술의 비대칭성 등 여러 차원에서 비대칭 전략을 구분해 볼 수 있다.<sup>10)</sup>

### 2.2.3. 힘의 균형에 의한 분류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 군사적 동등자의 비대칭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군사력의 차이가 뚜렷한 두 행위자 간에는 군사적 능력 면에서 비대칭이 나타날 때 약자의 선택은 강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혁신을 추구하거나 비대칭 전략을 통해 강자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상대의 취약성을 노리게 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강자는 전략적 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적극적 비대칭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게 되는 전략이 바로 강자의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군사력이 동등할 경우에도 소극적 방자보다 적극적 공자의 경우 작전적 또는 기술적 차원의 기습, 기만 등의 방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군사적으로

동등한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 2.3. 비대칭 전략의 특성

### 2.3.1. 상대성

비대칭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비대칭 전략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대칭전략’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대칭 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성을 갖는다.<sup>12)</sup> 최근 중국은 우주에 기반한 미국의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반위성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동일한 무기체계가 아닌 그러한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가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또한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전격전을 비대칭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록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항공기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작전개념과 운용방법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대칭 전략은 시대에 따라 상대성을 갖는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경우 양국은 핵무기와 전략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서로 사용의지를 낮추는 대칭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현대 테러집단의 경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극히 적은 수량의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테러집단이 표적으로 삼는 국가에 대해 현저한 비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 2.3.2. 예측불가능성

비대칭 전략은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아무리 뛰어난 비대칭 전략이라 하더라도 미리 그 수단과 방법이 노출되어 상대로 하여금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대칭은 그 용어 자체로 볼 때 불확실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대칭위협에 대비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선 적의 전략개념 및 작전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거나 ‘미러 이미지(mirror image)’가 적용되기 쉽다. 미러 이미지란 “오랜 기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의 국민들은

매우 유사하게도 상대에 대해 고정되고 왜곡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와 관련해서 과거의 전통적 이미지가 투영됨으로써 상대가 새로운 군사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15)</sup> 위와 같은 선입관은 약소국가들이 비대칭 전략과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간파하는 경우가 많다.

### 2.3.3. 한계성

현실적으로 일부국가들은 비대칭 전략보다는 대칭 전략을 선호할 수도 있다. 대칭전략은 이미 이전의 전쟁·교리·훈련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대칭전략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작전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sup>16)</sup> 중국혁명전쟁 당시 마오쩌둥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적의 공격을 회피한 채 농촌에 거점을 두고 도시를 포위하려는 마오쩌둥의 유격전술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대도시를 탈취하여야 한다는 볼셰비키의 혁명노선과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비대칭 전략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sup>17)</sup>

### 2.3.4. 유용성

비대칭 전략은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약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강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둔한 미군 해병막사에 대한 폭탄테러나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미군병사 시체에 대한 잔학행위 등은 해당지역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를 야기함으로써 비대칭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sup>18)</sup>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자가 약자일 경우 약자와 전략만으로는 강한 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1년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규모의 재정과 탄약 및 무기지원, 그리고 병력을 지원받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에 의해 국민당 군대의 전력이 약화되었고 소련의 직·간접인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시 북베트남은 초기 프랑스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렸으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중국의 전

폭적 군사지원에 힘입어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승리하고 1954년 휴전협정을 체결 할 수 있었다.<sup>19)</sup>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고 철수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사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sup>20)</sup>

### 3. 비대칭전의 주요사례

#### 3.1. 질과 양의 비대칭전

‘칸네전투’에서 로마는 ‘파울루스’와 ‘바로’를 집정관으로 세운다. 두 사람의 성격이 대조적이어서 신중론자인 파울루스와 야심이 차고 성격이 급한 한니발과 접촉 시까지 군의 지휘를 하루씩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니발은 이들 집정관의 성격을 간파하고 로마군의 과반수가 전투경험이 없는 병사임을 알고 난 뒤 로마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전투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sup>21)</sup> 이 전투에서 바로가 지휘하는 로마군은 전멸했다. 징키스칸 몽골의 기병 15만은 남송의 100여만 대군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냉전시 중부 유럽에서의 NATO군은 기술적 우위로 바르샤바군의 양적 우세를 극복하여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의 미군은 질적으로 절대 우위한 군사력으로 단기간 내 승리했다.

#### 3.2. 기술적 비대칭전

5세기 100년전쟁 당시 영국 보병의 ‘장궁’은 프랑스의 ‘석궁’과 기사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영국군은 프랑스군보다 4배나 열세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19세기 해양전략시대에는 이순신 제독의 ‘거북선(최초 철갑선),’ 프랑스의 ‘항해전함(최초의 대포장착 전함),’ 영국의 ‘대전함(Dread Naught)’ 등이 등장하여 그 위력을 십분 과시하였으며, 19-20세기 유럽의 맥심(Maxim)소총은 식민지 개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 기관총 및 전차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U-boat 및 V-1 및 V-2, 영국의 레이더, 일본의 어뢰, 미국의 항모 전단 및 전략 폭격, 그리고 미국의 원자폭탄 생산 및 투하 등은 기술의 비대칭적인 우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냉전

시에는 우주무기의 등장과 별들의 전쟁, 그리고 미사일 방어 등이 주목을 받았다.<sup>22)</sup>

#### 3.3. 전략 및 전술의 비대칭전

고대 그리스시대 테베(Thebe)의 에파미논다스(Epaminondas)는 루크트라(Leuctra) 전투에서 ‘사선진법(oblique order)’을 창안하여 약 두 배나 되는 스파르타군을 패퇴시켰으며,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칸네전투’에서 ‘양익포위 기동전’을 수행하여 수적 절대 우세의 로마군단에 완승하였다. 그 후, 스웨덴 ‘아돌푸스’의 철도를 이용한 ‘대기동전’, 제2차 세계대전 시 프랑스에 대한 독일 구테리안의 ‘전격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일본의 ‘가미가제,’ 한국전 시 미군에 대한 모택동의 ‘인해전술,’ 월남전 시 미군에 대한 보 구엔 지압(Vo Nguyen Giap)의 ‘치고 빠지기’ 게릴라전, 걸프전 및 이라크전 시 미군의 ‘정보전,’ 알카에다의 ‘테러전’(9·11사태) 등이 주요사례로 널리 언급되고 있다.<sup>23)</sup>

#### 3.4. 조직과 편성 비대칭전

고대 마케도니아의 부대 대형인 팔랑스(Phalanx), 로마의 보병군단 레기온(Legion), 몽골의 기마군단, 나폴레옹의 ‘시민군,’ 프러시아의 ‘일반참모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테리안의 ‘판저(Panzer)부대,’ 미공군의 ‘공격편대군,’ 미 해군의 ‘항모전단’ 등이 이 조직과 편성 면에서 비대칭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법, 무기, 조직 등 어느 한 부분의 차별적 우월로도 결정적 승리가 가능한 경우를 비대칭전의 사례라고 앞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호 연계 결합하여 상대적인 우월성을 극대화시킬 때 비대칭 전략이나 무기, 조직 등의 효과는 증가된다.

#### 3.5. 최근 전쟁에서의 비대칭전

##### 3.5.1. 9·11테러리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테러 대참사는 21세기형 비대칭 전략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이끄는 테러집단의 공격을 받아 힘의 상징인 펜타곤과 부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고 세계 80여개 국적의 귀중한 생명이 3,2

25명이나 희생되었다.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최강의 미국과 대칭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나, 그들은 미국의 강점은 피하고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대칭적인 방법 및 수단으로 기습에 성공했다. 그들의 수단은 ‘칼’이었으나 그들의 성과는 대륙간탄도탄(ICBM)의 위협을 보였다. 현재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획득하게 될 경우를 가장 위협스럽게 생각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확보능력 향상과 외 부확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sup>24)</sup>

### 3.5.2.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의 정규작전에서는 매우 쉽게 승리하였으나, 안정화 및 국가 재건작전에는 크게 실패하였다. 이라크전의 경우, 미국은 2003년 3월 19일 개전, 4월 9일 바그다드 완전장악, 5월 1일 주요전투 종료선언에 이르는 43일간의 정규작전에서는 희생자가 전사자 138명, 부상자 542명에 불과했지만, 종전선언 이후 2009년 1월까지 안정화작전에서 전사자가 누계 4,228명, 부상자가 30,984명이나 발생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2007년 5월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6,0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현재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sup>25)</sup>

### 3.5.3. 제4세대 전쟁론

미국의 사회학자인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가 처음으로 정의한 제4세대 전쟁은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비대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9·11테러 참사 이후 미국은 ‘제4세대 전쟁’이론을 활발하게 연구·발전시키고 있다. 인류는 제1세대 전쟁인 나폴레옹시대, 제2세대 전쟁인 산업시대, 소모전·화력전을 거쳤다. 지금은 제3세대 전쟁 요소인 정보시대, 네트워크전 및 신속기동전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제4세대 전쟁이라고 일컫는 소규모 독립단위셀, 비정규전과 게릴라전, 테러리즘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제4세대 전쟁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테러리즘 집단과 소수민족 해방운동 세력, 반정부 저항단체들의 전쟁수행 주체가 부각되고

있다. 둘째, 전방과 후방, 전투와 민간분야, 전쟁과 평화의 불확실성 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셋째, 테라살상무기(WMD)와 자살공격 테러리즘, 사이버전쟁과 같은 비전통적인 전쟁수행 수단의 동원 등이 있다.<sup>27)</sup>

앤드루 맥(Andrew J. R. Mack)이 지난 약 200년간(1800-1998) 발생한 전쟁자료들이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자도 전체 중 29.2%나 승리했고, 약자의 승리 비율이 1800-1949년 기간중에 11.8%, 1850-1899년 기간중에, 20.2%, 1900-1949년 기간중에 34.9%, 1950-1998년 기간중에 55%로 대폭 증강되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월남전의 경우처럼, 강자는 생존위기의식이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승리에 대한 이해관심이 약하고 이로 인해 전쟁지도력이 약화되어 약자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8)</sup>

최근에는 미국과 대결하려고 맞서는 국가나 단체들은 새로운 방법의 비정규 전투와 게릴라전을 구사한다. 이들 세력은 미국의 힘으로 자신을 손상·파괴하려고 유도하고, 그 빌미로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다수의 미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충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4. 비대칭전의 시사점

앞에서 제시한 비대칭전 사례분석에서 우리가 도출한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대칭과 비대칭간의 상호관계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승전의 핵심요인에는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의 차별적 우월성이 반드시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한 때 창출된 비대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이 모방적으로 적용하여 비대칭이 소멸되기 때문에 대칭전과 비대칭전은 작용과 반작용적 순환을 계속 반복해왔으며, 비대칭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새로운 비대칭을 계속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가나 집단 간 약자와 강자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도출 가능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궁지에 몰린 약자가 강자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비대칭적인 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라할지라도 약자의 강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자도 강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비대칭적인 국제외교 전략에서의 우세로 강자의 비대칭적 군사우세를 약화·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네트워크는 강자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구조지만, 취약점과 허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약자에게도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약자들이 지향하는 비정규전·게릴라전·비대칭전은 강자의 정규전·전격전·대칭전에 대항하는 전쟁과 전투유형으로 존재해 왔는데 최근 약자의 위상·위력·위세가 제고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강자의 군사혁신이 정보혁명을 이용한 전장가시화와 정보공유화, 그리고 장사정 정밀타격에 의한 ‘신 전격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아직은 비정규전·게릴라전·전복소요전·안정화작전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약자의 비대칭 전략과 전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게릴라 및 테러리스트를 분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정의의 세력이라는 도덕적 힘을 지녀야 한다. 동시에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전쟁과 작전임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대칭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전투에서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방법과 전략·전술로 적을 격멸한 사례들은 비대칭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핵심요인에는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의 차별적 우월성이 반드시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대전에서 전략적·전술적 비대칭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새로운 비대칭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을 초월하는 정책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연합뉴스 2016년 2월 16일자
- 2) 김성우, 『6.25전쟁사』, (서울 : 진영출판사, 2015), p.316.
- 3)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2014), p10.
- 4) 백광일·남창희·이수형,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 정치』, 제19권 제2호, 2003, pp. 12-152.
- 5) 이상학, “육군의 미래작전수행개념연구,” 한국전략

- 문제연구소, 『육군 전투 발전: 미래육군모습설계 및 전투발전방안』, 2003, pp. 125-126.
- 6) 김성우, 손자병법(서울, 진영사, 2015), p.16.
- 7)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일신사, 1985), pp. 55-66.
- 8)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II, A Symmetry &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1), p. 9.
- 9)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II(2001), pp. 6-7.
- 10)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08년 봄, 통권 제79호, p. 191.
- 11) 박창희(2008), pp. 192-195.
- 12) Bruce Bennett et. at.,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Santa Minica: RAND, 1999), p. 3.
- 13) James H. Hugh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Military Space Program,”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 27, no. 4, Winter 2002, p. 406
- 14) 박창희(2008), p. 185.
- 15)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arative Survey(Cambridge: Harper & Row, 1981), pp. 282-248.
- 16) Bruce Bennett et. al.(1990), p. 7.
- 17)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arameters, Winter 2006, p. 23.
- 18) Jeffrey Recerd(2006), pp. 22-44.
- 19) Chen Jian, “China and the First Indo-China War, 1950-1954,” The China Quarterly, March 1993, no. 133, pp. 85-110.
- 20) 박창희(2008), p. 24.
- 21) 노병천, 도해세계전사(서울 ; 연경문화사, 1996), p.57.
- 22)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대칭 전략 및 정책 방향.”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년 가을호, 통권 제89호, pp.48-49
- 23) 권태영(2010), pp.49-50
- 24) 권태영(2010), pp.50-51.
- 25) 김강녕, 『남북한과 국제정치』 (경주 : 신지서원, 2011. 8), p. 87.
- 26) 김재엽, “4세대 전쟁: 미래전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 제17권 1호 (2010. 3. 30), pp. 162-191.
- 27) 양욱, “4세대전쟁, 한국의 대비책” 『시사저널』, 통권 제 1108호(2011. 1. 11), pp. 30-33.
- 28) 권태영(2010), pp. 52-53.

————— [저 자 소 개] —————



**김 성 우 (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email : tiger@tu.ac.kr